

자본 및 생태환경 요인이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apital and Ecological Variables on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김명숙*, 고종욱**

마이비즈니스설터*,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Myeong-Suk Kim(jarakim65@naver.com)*, Jong-Wook Ko(jwko@anyang.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및 생태환경 요인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적 자본 변수는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의 세 변수를,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공식적 상호작용의 두 변수를, 문화적 자본 변수로는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의 세 변수를 그리고 생태환경변수로는 배우자 유무, 주택점유형태 및 거주지역의 세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노인자원봉사 변수로는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의 두 변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집한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인적 자본 요인들인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 요인들 중에서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식적 상호작용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만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자본 요인들인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 요인들 중에서 주택점유형태와 거주지역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배우자 유무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노인자원봉사활동 | 인적자본 | 사회적 자본 | 문화적 자본 | 생태환경적 요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and ecological variables on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In this study, three variables of education,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examined as human capital factors, two variables of formal and informal interaction as social capital factors, three variables of religion, cultural organization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s cultural capital factors, and three variables of existence of spouse, housing tenure and residence area as ecological factors. In addition, two variables of volunteering participation and continuous volunteering participation intention were considered as dependent variables. For this study, "Senior Job Replacement Project Participants" data collected by the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were used and analyzed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This study found that three human capital variables(education, income, physical health) had positive effects on volunteering participation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among older adults; of the two social capital variables, informal inter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volunteering participation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whereas formal inter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three cultural capital variables(religion, cultural organization participation, quality of life) had positive effects on both volunteering participation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and of three ecological variables, housing tenure and residence area had positive effects on volunteering participation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whereas existence of spouse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dependent variables.

■ keyword : | Volunteering Activity | Human Capital | Social Capital | Cultural Capital | Ecological Factor |

접수일자 : 2014년 09월 23일

수정일자 : 2014년 10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22일

교신저자 : 고종욱, e-mail : jwko@anyang.ac.kr

I.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1] 따르면 2010년 545만 명에 비해서 2030년에는 2.3배, 2060년에 3.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노인인구 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미흡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수입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위와 무료,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와 경제활력의 저하, 의료 및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을 들 수 있다[2].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생산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 이 주장의 핵심은 노인들이 더 이상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참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하자는 것이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4].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자원이론이다. 이 이론은 노인자원봉사활동 영향요인으로 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본 혹은 자원의 세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5][6]. 한편, 자원이론과는 별개로, 최근에 노인자원봉사활동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노화의 일반생태학이론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생태환경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원봉사활동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원이론과 노화의 일반생태학 이론의 시각에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증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7][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둘 이론에 기반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이론에서 제시하는 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본 요인 그리고 노화의 일반생태학 이론에서 강조하는 생태환경 요인들이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종속변수인 노인자원봉사활동 변수로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의 두 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실무적 차원에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수립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자원이론이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6][7].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원이론은 자원봉사활동을 자본(자원)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혹은 자원을 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본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력과 같은 인적 자본, 협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자본, 그리고 타인을 돕거나 이롭게 하고자 하는 윤리적 행동과 가치를 포함하는 문화적 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적 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노화의 일반생태학이론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가 개인을 둘러싼 생태환경과의 교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영향요인으로 생태환경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자원이론의 입장에 근거하여 이 이론에서 강조하는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요인과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 일반생태학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환경요인과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1. 자본 요인과 자원봉사활동

1.1 인적 자본 요인

자원이론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적 자본이다. 인적 자본은 원래 경제학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발생과 관련된 선천적으로 가진 재능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식의 총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 학자인 Schultz[8]는 인적 자본을 인간에게 체화된 기술, 지식의 스톡이라고 정의하는데, 특히 그는 인적 자본의 요소 중 학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가 아닌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제고를 위한 일종의 투자활동으로 간주한다.

시장영역에서 사용되던 이와 같은 인적 자본 개념은 자원이론에서 비시장영역으로 적용을 확대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자원이론에서 인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학력, 기술, 수입, 건강 등과 같은 개인적인 투입요소들을 가리킨다. 자원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이며, 이런 자본을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수행을 수월하게 해준다고 본다. 즉, 인적 자본이 많을수록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가 증대된다는 것이다[6][9].

인적 자본의 구성요소로는 타고난 능력, 학력, 지식, 건강, 소득, 훈련, 직업, 현장학습 그리고 기술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력, 소득, 건강의 세 변수가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도 인적 자본의 지표로서 학력, 소득, 신체적 건강의 세 요인을 사용하여 인적 자본이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11-14].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일수록 보다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인적자본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학력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소득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신체적 건강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사회적 자본 요인

자원이론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두 번째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호성, 신뢰성, 연결망 등 사회적 관계망에서 개인에게 축적되는 자본을 가리킨다[17].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들인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민적 공동체의 속성을 지닌다[17]. 즉,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고, 개인과 사회의 공식·비공식적인 모든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축적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18].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는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이다.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적 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17].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하고, 감시 및 통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과 결속,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18]. 규범은 사회 및 조직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가 수반되는 법칙이나 관습을 말하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관습이나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약속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18].

자원이론은 사회적 자본이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노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을 요청받게 되어 참여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가진 노인들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다[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로는 네트워크, 호혜성구범, 신뢰, 참여기회,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 공동체 조직생활[17][18][20][21]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로서 비공식 영역에서의 친인척, 친구, 이웃 등과의 상호작용 빈도를 가리키는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조직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활동을 의미하는 공식적 상호작용의 두 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16][22][23]. 또한 공식적 상호작용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24-26].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사회적 자본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공식적 상호작용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문화적 자본 요인

자원이론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세 번째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적 자본은 하나의 지식형식, 내재화된 코드, 또는 문화적 관계들과 문화적 가공물을 해독하는데 있어서의 능력, 해독하기 위한 감상력, 인식의 취득을 말한다[27]. 문화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28]. 첫째, 문화적 자본은 지속적이다. 경제적 자본은 어느 한 순간에 상실할 수 있지만, 문화적 자본을 습득하게 된 최초의 조건들은 그 개인 자신이 출생한 가정이나 지역을 떠난 후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둘째, 문화적 자본은 비실체적이다. 경제적 자본이 상대적으

로 실체가 분명한 물질적인 대상들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반해서 문화적 자본은 실체가 분명치 않는 비물질적 대상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적 자본은 은폐되어 있다. 경제적 자본은 즉각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문화적 자본은 종종 은폐된 형태로 존재하고, 넷째, 문화적 자본은 비전유성의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자본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문화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는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전유할 수 없다.

Bourdieu[27]는 문화적 자본을 체화된 상태, 객관적 상태 및 제도화된 상태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체화된 상태는 문화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품위, 세련됨, 교양을 의미하고, 객관적 상태는 그림, 책, 도구, 물건 등의 문화적 재화형태의 자본을 말하며, 제도화된 상태는 대개 학위나 자격증을 의미한다.

자원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자본은 개인 또는 사회의 윤리나 가치자원으로써 이타적 가치관, 자원봉사에 대한 선호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문화적 자본의 한 측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이며 사회의 큰 호의를 베풀려는 동기이다. 따라서 문화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자본 측정지표로는 종교, 종교 모임 참여회수, 종교활동, 독서활동, 삶의 질 [6][23][29][30] 등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본 요인으로 문화적 자본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종교에 덧붙여 문화단체 참여여부 및 삶의 질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단체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을수록 문화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7][2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고, 종교적 기부나 자선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16][18][23][29]. 또한 선행연구들은 문화단체 참여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30][31].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문화적 자본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 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종교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문화단체 참여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삶의 질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생태환경 요인과 자원봉사활동

자원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본 요인 이외에, 노화의 일반생태학적 이론은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태환경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노화는 환경요구에 반응하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고 생활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 노화의 일반생태학 이론들은 개인은 생활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 생활환경은 가족 및 이웃들과 그리고 물리적 환경들과 더 넓게는 인간-환경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32].

노화의 일반생태학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증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생애과정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능의 변화와 계속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환경 맥락(environment contexts)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33]. 노화의 일반생태학이론 관점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생태환경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그리고 문화적 자본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3][34].

생태환경요인들과 노인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데, 거주하는 물리적 환경, 인구크기, 가구크기, 가족, 동네, 직장 및 직업, 학교, 도시, 지역, 국가[35][36]등의 변수들이 생태환경요인들로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생태환경요인으로 배우자유무와 주택점유형태, 그리고 물리적 생태환경요인으로 거주지역의 세 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배우자유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

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독거노인가정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이 외부 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36][37], 주택점유형태와 관련해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노인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고 월세나 전세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6]. 그 이유는 자가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집을 가꾸고 돌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38]. 한편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농어촌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23].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생태환경요인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4.2. 임대거주노인이 자가 거주노인보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4.3.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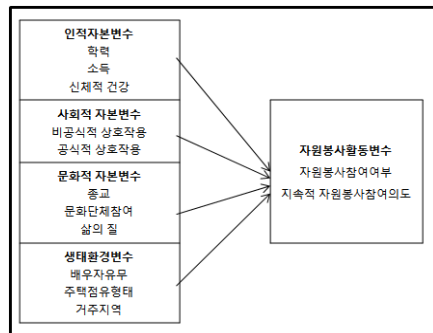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와 대안마련을 위한 기초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집한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모집단은 2012년 7월 31일 기준 전국(제주, 세종시 제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222,381명이며, 표본의 크기는 2,005명이다. 조사를 위한 표본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의 다섯 가지 일자리사업유형별로 200명씩 최소 할당 후 비례배분을 하고, 이어서 모집단의 시도별 및 지역크기별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본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약 6주간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개별면접조사방식을 사용하였다[39].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이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만 60세 이후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하고 있거나, 만 60세 이후 참여경험이 있다' 혹은 '없다'라는 두 개의 응답범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는 '자원봉사활동에 계속해서 참여를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할 것이다' 혹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두 개의 응답범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인적 자본 변수로는 학력, 소득, 신체적 건강의 세 변수를 사용하였다. 학력은 정규졸업학력수준을 측정하여 연속변수로 전환하였고, 소득은 2011년도 연간 개인소득액을 물어 측정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러 앉거나, 무릎을 굽히기', '머리보다 높

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기', '쌀 1말(1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의 6개 동작 각각을 하는데 어려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할 수 없다'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까지의 4개의 응답범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건강 측정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α)가 0.883으로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공식적 상호작용의 두 변수를 사용하였다.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현재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친인척, 친구, 이웃의 수'로 측정하였으며, 공식적 상호작용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친목단체의 수'로 측정하였다.

문화적 자본 변수로는 종교, 문화단체 참여 여부, 삶의 질의 세 변수를 사용하였다. 종교는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종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무종교로 간주하여 측정하였고, 문화단체 참여 여부는 '현재 문화단체에의 참여 혹은 미참여 여부'를 물어 측정하였다. 삶의 질은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의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스케일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변수로는 가족환경 변수인 배우자유무 및 주택점유형태 그리고 지역환경 변수인 거주지역의 세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1.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

변 수		측정	
종속 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	① 현재 참여 혹은 만 60세 이후 참여 경험 있다 ② 없다	
	자원봉사 참여의도	① 참여할 것 ② 참여하지 않을 것	
독립 변수	인적 자본 변수	학력	① 무학 ② 초등 ③ 중학 ④ 고교 ⑤ 전문대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이상
		소득	2011년도 연간 개인소득액(백만원)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6가지 동작 수행의 어려움 정도. ① 전혀 할 수 없다 ② 매우 어렵다 ③ 약간 어렵다 ④ 전혀 어렵지 않다
		사회적 자본 변수	비공식적 상호작용
	공식적 상호작용	현재 참여하고 있는 친목단체의 수(개)	

문화적 자본 변수	종교	종교단체 참여 여부 ① 참여 ② 미참여
	문화단체 참여	① 참여 ② 미참여
	삶의 질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생태 환경 변수	배우자유 무	① 있다 ② 없다
	주택점유 형태	① 임대 ② 자가
	거주지역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주: 표에 제시된 이산변수들은 분석 시 모두 가변수로 전환하였음.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한 ‘2012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의 표본은 각 사업유형별 ‘최소할당후 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도록 원자료에 사업유형별, 시도별 및 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는 모두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로짓 스틱 회귀분석을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설정오류로 인한 보수추정치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별과 연령의 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 넘으며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산팽창지수를 계산한 결과 1.029~1.543 범위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변수들의 기술통계

우선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60세 이후에 참여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비율은 20.3%인 반면에 경험이 없는 노인들은 7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22.6%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7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대상 노인들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33.0%, 여자는 이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67.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73.4세로 나타났다.

인적 자본 변수에 해당하는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의 기술통계를 보면, 평균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6.1년이며, 연간 개인총소득 평균은 267만 이고, 신체적 건강 점수 평균은 4점 만점에 3.38점으로 전반적으로 분석대상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친인척, 친구, 이웃의 수의 평균은 8.32명, 그리고 공식적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참여 친목단체의 수의 평균은 0.59개이다.

문화적 자본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종교는 있는 경우가 24.3%, 없는 경우가 75.7%이며, 문화단체 참여여부는 참여가 7.8%, 미참여가 92.2%의 분포를 보였고, 삶의 질을 보면 4점 만점에 평균이 3.39점으로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의 경우 있다는 비율이 51.1%, 없다는 비율이 4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점유형태는 임대가 27%, 자가가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가 39.8%, 중소도시가 38.0%, 농어촌이 2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분석변수들의 기술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대상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 일반의 특성들과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기술통계		
종속 변수	자원봉사 참여여부	참여	비참여	
		20.3%	79.7%	
통제 변수	자원봉사 참여의도	참여할 것	참여하지 않을 것	
		22.6%	77.4%	
통제 변수	성별	남	여	
		33.0%	67.0%	
통제 변수	연령 (만나이)	평균	표준편차	
		73.43	5.06	
인적 자본 변수	학력(년)	평균	표준편차	
		6.13	4.13	
		평균	표준편차	
인적 자본 변수	소득 (백만원)	2.67	3.89	
		평균	표준편차	
		3.38	0.59	
사회적 자본 변수	비공식 상호작용(명)	평균	표준편차	
		8.32	7.49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자본 변수	공식 상호작용(개)	0.59	1.01	
		있다	없다	
		24.3%	75.7%	
문화적 자본 변수	문화단체 참여	참여	미참여	
		7.8%	92.2%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 자본 변수	삶의 질(점)	3.39	0.68	
		있다	없다	
		51.1%	48.9%	
생태 환경 변수	배우자유무	임대	자가	
		27.0%	73.0%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39.8%	38.0%	22.2%

주: 표에 제시된 표준편차는 값이 클수록 측정값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2.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변수 및 생태환경변수가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짓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호스머와 레메쇼 χ^2 검증 통계량이 255.135로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분석모형이 방정식이 자료와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Nagelkerke R² 이 .188로서 예측값의 전체 변량을 18.8% 설명하고 있으며, 예측값의 분류 정확도는 79.7%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적 자본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의 세 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승산비(odds ratio)는 자원봉사경험확률과 미경험확률

간의 비율로서 승산비가 1 이상인 경우 자원봉사참여 경험이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는 확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승산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의미한다.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 변수의 승산비는 각각 1.094, 1.048 및 1.328로서, 이는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참여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이 각각 한 단위 높아지면 자원봉사 참여경험확률이 각각 약 1.1배, 1.05배 및 1.3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식적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승산비는 1.032로서 친인척, 친구, 이웃의 수가 1명 증가하면 자원봉사참여경험확률이 약 1.03배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문화적 자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의 세 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승산비는 각각 1.498, 2.127, 및 1.507이다. 따라서 종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문화단체에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원 봉사참여경험확률이 미경험확률보다 각각 약 1.5배와 2.1배 높으며, 삶의 질이 1점 높아지면 자원봉사참여경험확률이 약 1.5배 증가한다.

넷째로, 생태환경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택점유형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세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배우자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의 승산비는 1.272로서 자가에 비해 임대 거주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경험확률이 약 1.3배 높다.

그리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승산비는 각각 2.890과 1.778로서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노인들이 농어촌 거주 노인들보다 자원봉사참여경험확률이 각각 약 2.9배와 1.8배 높으며, 이것은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의 두 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구 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승산비
통제 변수					
성별 ¹⁾	-0.250	0.158	2.492	0.057	0.779
연령	-0.008	0.013	0.336	0.281	0.992
인적 자본 변수					
학력	0.090**	0.016	32.210	0.000	1.094
소득	0.047**	0.014	10.967	0.001	1.048
신체적 건강	0.276**	0.114	5.917	0.008	1.318
사회적 자본 변수					
비공식적 상호작용	0.031**	0.008	17.026	0.000	1.032
공식적 상호작용	-0.043	0.059	0.540	0.231	0.958
문화적 자본 변수					
종교 ²⁾	0.404**	0.136	8.807	0.002	1.498
문화단체참여 ³⁾	0.755**	0.193	15.272	0.000	2.127
삶의 질	0.410**	0.095	18.660	0.000	1.507
생태환경 변수					
배우자유무 ⁴⁾	-0.152	0.140	1.178	0.139	0.859
주택점유형태 ⁵⁾	0.240*	0.139	3.003	0.042	1.272
대도시 ⁶⁾	1.061**	0.194	29.876	0.000	2.890
중소도시 ⁷⁾	0.575**	0.199	8.366	0.002	1.778
(상수)	-4.829*	1.141	17.910	0.000	0.008
Homers & Lemeshow 검정 $\chi^2= 255.135^{**}$, DF=14, P=.000					
-2 log likelihood			1768.485		
Nagelkerke R ²			0.188		
분류정확비율			79.7%		

주: 1) 남=1, 여=0; 2) 있음=1, 없음=0; 3) 참여=1, 비참여=0; 4) 있음=1, 없음=0; 5) 임대=1, 자가=0; 6) 대도시=1, 기타=0; 7) 중소도시=1, 기타=0

* p < .05, **p < .01

3.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표 4]는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변수 및 생태환경변수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서 호스머와 레메쇼 χ^2 검증통계량이 268.540로서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분석모형이 방정식이 자료와 부합한다. 그리고 Nagelkerke R² 이 .191로서 예측값의 전체 변량을 19.1% 설명하고 있으며, 예측값의 분류정확도는 78.7%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적 자본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의 세 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과 참여하지 않은 확률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odds ratio)를 보면,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 변수의 경우 각각 1.069, 1.046 및 1.333이다. 이것은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이 각각 한 단위 높아지면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각각 약 1.1배, 1.05배 및 1.3배 증가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공식적 상호작용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변수의 승산비는 각각 1.022와 1.137로서 친인척, 친구, 이웃의 수가 1명 증가하면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약 1.02배 증가하며, 참여 친목단체의 수가 1개 증가하면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약 1.1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문화적 자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의 세 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승산비는 각각 1.529, 2.180 및 1.477이다. 이것은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약 1.5배, 그리고 문화단체에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약 2.2배 높으며, 삶의 질이 1점 높아지면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약 1.5배 증가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넷째로, 생태환경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택점유형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세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배우자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점유형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승산비는 각각 1.368, 2.665 및 1.844이다. 즉,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자가에 비해 임대 거주 노인들이 약 1.4배 높다. 그리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노인들이 농어촌 거주 노인들보다 약 2.7배, 및 1.8배 높으며, 따라서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연령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산비가 0.971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표 4.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승산비
통제 변수					
성별 ¹⁾	0.074	0.150	0.241	0.312	1.076
연령	-0.030*	0.013	5.441	0.010	0.971
인적 자본 변수					
학력	0.067**	0.015	19.397	0.000	1.069
소득	0.045**	0.014	10.494	0.001	1.046
신체적 건강	0.288**	0.109	6.913	0.005	1.333
사회적 자본 변수					
비공식적 상호작용	0.022**	0.007	8.356	0.005	1.022
공식적 상호작용	0.128*	0.055	5.396	0.010	1.137
문화적 자본 변수					
종교 ²⁾	0.424**	0.132	10.296	0.001	1.529
문화단체참여 ³⁾	0.779**	0.190	16.889	0.000	2.180
삶의 질	0.390**	0.091	18.141	0.000	1.477
생태환경 변수					
배우자유무 ⁴⁾	-0.013	0.135	0.009	0.463	0.987
주택점유형태 ⁵⁾	0.313*	0.135	5.424	0.010	1.368
대도시 ⁶⁾	0.980**	0.185	28.170	0.000	2.665
중소도시 ⁷⁾	0.612**	0.187	10.674	0.001	1.844
(상수)	-3.210**	1.102	8.490	0.002	0.040
Homers & Lemeshow 검정	$\chi^2 = 268.540^{**}$, DF=14, P=0.000				
-2 log likelihood	1873.669				
Nagelkerke R ²	0.191				
분류정확비율	78.7%				

주: 1) 남=1, 여=0; 2) 있음=1, 없음=0; 3) 참여=1, 비참여=0; 4) 있음=1, 없음=0; 5) 임대=1, 자가=0; 6) 대도시=1, 기타=0; 7) 중소도시=1, 기타=0

* p < .05, **p < .01

4. 결과의 논의

연구결과, 첫째, 인적 자본 변수들인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의 세 변수는 일관되게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적 자본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발견한 선행연구들[14-16][37]과도 일치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연구[16][22-25]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 양자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노인의 자원 봉사활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1는 본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한편, 공식적 상호작용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상호작용이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는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노인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적 상호작용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2는 본 연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선행연구와 달리 공식적 상호작용이 노인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본 연구대상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으로 제한되었거나 측정 척도의 정밀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 자본 요인과 관련하여, 문화적 자본의 지표로 사용된 종교유무, 문화단체 참여 여부 및 삶의 질의 세 변수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3은 경험적으로 지지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5][23][29-31]들의 발견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는, 물론 일부 예외(공식적 상호작용과 노인 자원봉사 참여여부 간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본이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자원이론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요인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임대거주노인이 자가거주노인보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2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3은 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12][32]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포함한 본 연구결과는 자원이론에서 강조하는 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본 요인들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요인도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노화의 일반생태학 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배우자 유무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1은 본 연구에서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달리,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 자주 참여한다는 결과를 발견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12][32],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 자주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8]. 이처럼 배우자 유무와 노인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성이 없는 발견들을 보고하고 있다. 배우자 유무와 노인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에 관한 보다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결과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인적, 사회적, 문화적 및 생태환경의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는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및 생태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자원봉사영역을 위축시키고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가치를 다소 훼손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노인들의 소득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도 교통비 및 식대비용정도는 지급될 수 있는 보상이 따라야만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노인문화센터, 경

로당 등 각종 노인복지 관련 기관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네트워크 및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이타적 가치관과 자원봉사활동 선호도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소양교육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타적 가치관의 함양이란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에 있어서 종교단체와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노인들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측면에서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적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노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복지 관련 시설의 확충과 자원의 배분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대표성 있는 노인표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 통계청, 2011
- [2] 허성호, 김종대,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제31권, 제2호, pp.417-418, 2011.
- [3] J. W. Rowe and R. H.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98.
- [4] 서경석, *신노년문화와 노인자원봉사*, 노인복지 현 장라운드 테이블, 제4회 서울노년학 국제심포지

- 음, 서울, 한국, 2009.
- [5] J. Wilson and M. Musick,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2, pp.694-713, 1997a.
- [6] J. Wilson,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6, pp.215-240, 2000.
- [7] 이현기,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생태환경변수의 효과: 노화의 일반생태학이론을 적용하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3호, pp.777-800, 2012a.
- [8] T. W. Sc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1, 1961.
- [9] L. R. Fisher and K. B. Schaffer, *Older volunteer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3.
- [10] J. Mincer, "Economic development, growth of human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he wage structure," *Journal of Economic*, Vol.1, pp.29-48, 1995.
- [11] B. Burtica, R. Johnson, and S. Zedlewski, "Volunteer dynamics of older America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64B, pp.644-655, 2009.
- [12] J. Kim, J. H. Kang, M. A. Lee, and Y. Lee, "Volunteering among older people in Korea,"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62B, No.1, pp.S69-S73, 2007.
- [13] 이현기,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5권, pp.317-346, 2009.
- [14] 김창석, 최수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15-326, 2012.
- [15] M. Musick, A. Herzog, and J. House, "Volunteering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finding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Gerontology*, Vol.54B, pp.S173-S180, 1999.
- [16] 이현기,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0권, pp.263-290, 2010.
- [17] R. D. Putnam, "Bowling alone: American'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No.1, pp.65-78, 1995a.
- [18] 박희봉, 이희찬,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분석: 경제·사회적요인가? 사회자본 요인가?",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pp.709-728, 2005.
- [19] J. D. Smith and J. A. Macaulay, *Participation in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0.
- [20] J. E. Inouye, *Effect of institutional trust on formal and informal volunteering*, Conference Papers-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1-22, 2007.
- [21] 소진광,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성남발전연구소*, 제3권, pp.75-117, 2003.
- [22] 김지혜, 정익중,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비영리연구*, 제64권, 제2호, pp.133-158, 2012.
- [23] F. Tang, "What resource are needed for volunteering?,"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25, No.5, pp.375-390, 2006.
- [24] 박용순, 송진영, 황치정, "전문직 은퇴자 및 은퇴 예정 남성의 자원봉사몰입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제56권, pp.33-60, 2012.
- [25] 김성경, "사회적 자본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1권, 제3호, pp.317-337, 2009.
- [26] M. A. Musick, J. Wilson, and W. B. Bynum, "Race and formal volunteering :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lass and religion," *Social Force*, Vol.78, No.4, pp.1539-1571, 2000.
- [27]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1986,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Greenwood Press, 1986.

[28] 장미혜,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 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 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pp.223-251, 2002b

[29] 박수범,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5권, 제1호, pp.137-162, 2006.

[30] 이현기, "일반노인 시간자원봉사의 특징: 평균시간과 개인자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4권, pp.87-411, 2011

[31]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2007.

[32] M. P. Lawton and L. Nahemow, *An ecological theory of adaptive behavior and aging*: In C. Eisdorfer & M.P. Lawton(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657-667, 1973.

[33] Y. Cvitkovich and A. Wister, "Bring in the life course: A modification to Lawton's ecological model of aging," *Hallym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Vol.4, No.1, pp.15-29, 2002

[34] E. A. Greenfield, "Using ecological frameworks to advance a field of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on aging-in-place initiatives," *The Gerontologist*, Vol.52, No.1, pp.1-12, 2012.

[35] 이현기, "노년기 생활환경과 중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현금기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4호, pp.305-329, 2012b.

[36] S. Y. Kim and G. S. Hong, "Volunteer participation and time commitment by older American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Vol.27, No.2, pp.146-166, 1998.

[37] 이성록,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사회복지실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pp.215-274, 2002

[38] H. W. Wahl and F. Oswald, *Environmental perspectives on ageing*, pp.111-124 in D. Dannefer and C. Phillipson(ed.), *The Sage*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2010.

[3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2012.

저 자 소 개

김 명 숙(Myeong-Suk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 문대학원 벤처기술경영학과졸업(석사)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 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졸업(박사)

• 2011년 7월 ~ 2012년 12월 : JD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3년 2월 ~ 2014년 : 현재 마이비즈컨설팅(주)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실버산업,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및 창업, 인사관리

고 중 욱(Jong-Wook Ko)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학사)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석사)
- 1996년 5월 : 미국 University of Iowa 졸업(사회학 박사)

• 1990년 3월 ~ 2000년 2월 : 중부대학교 교수

• 2001년 3월 ~ 2014년 현재 :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인사조직, 방법론